

출제보도 및 학습자료

2026학년도 SMAKO 모의고사 6회

□ 국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텍스트에 담긴 심도 있는 정보들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을 정보의 이해와 재구성, 추론과 비판 및 적용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때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통합적 출제를 지향했다. 또한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 내용 및 표현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텍스트, 수준 높은 교양과 통찰이 담긴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정보의 위계와 조직 방식들을 고려하여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재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국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엄선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구성한 후, 이 제시문에 담긴 고차적·입체적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그 추론을 새

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비판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여러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담론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하되, 제시문의 정보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독해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3. 제시문 및 문항

출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 높은 제시문으로 독해력을 측정해야 한다. 논의의 완결성은 물론 표현의 가독성을 함께 갖춘 텍스트를 제시하되, 주어진 수험 시간 내에 처리할 만한 정보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기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학문적·교양적 가치가 담긴 주제나 논의를 담은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인문’, ‘과학기술’, ‘규범’, ‘예술’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5세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에서 ‘운동인’을 ‘작용자’로 볼 것인지 ‘설명적 요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룬 제시문이 주어졌다. 작용론에서 말하는 ‘목수의 사례’에 대해 설명론은 그것이 문제점을 갖는다 하였다. 그 내용을 물어보는 11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소거법 스타일로 출제되었으나, 정답을 ①에 배치하여 손가락 걸기만으로 시간을 절약하게끔 유도하였다. 문제점의 내용은 목수와 영혼이 물리적 영역에 대한 점유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유사성을 기반한 논증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제시문 속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끔 설계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은하를 분류하는 MGS 알고리즘 방식을 다루는 기술 제시문과 그람음성균의 일종인 아시네토박터 균주의 생존 기제를 다루는 생물 제시문이 주어졌다. 먼저 MGS 알고리즘 제시문에서는 알고리즘의 수행 방식, 즉 Cause-of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6번 문항의 ③과 같이 서로 다른 L 값에 따라 K 값이 다르게 구해지더라도 관측 영역 내 은하의 수를 관측 영역의 부피로 나눈 평균밀도는 L , K 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추론 중 하나였다. 다음으로 아시네토박터 균주 제시문에서는 부착표면의 종류에 따라 접착 기제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가령 생체조직의 경우 csu-P가 고정된 이후 GMP-신호전달계에 의해 그 양이 증폭되지만, 부착표면이 무생물이라면 omp-A의 양을 증폭시키는 기제는 GMP-신호전달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번 문항의 ③은 적절한 추론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법의 생태학에 관한 제시문이 주어졌다. 고대 서양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있으며, 법의 생태학 정립

을 주장한 카프라와 마테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편 [A]는 제시문 속 다른 내용과 유기성을 가지면서도 3번 문항 출제를 위한 독립 문단으로서 설계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했듯이, 유기체의 자기조절력은 타고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유기체의 부분인 기관은 자기준거성을 갖고 있으나 자기조절력 기능이 자기준거성에서 비롯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3번 문항의 ①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장자의 수양론에서 진정한 그림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특히 무위의 앎에 도달하기 위한 연쇄적 과정에서 서로 구별되는 범주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A]는 15번 문항 설계를 위한 요소로 고려되었고, 이때 비슷한 것을 같은 것을 착각하면 오답을 일으키게끔 셋업을 해놓았다. 무위의 앎의 조건은 곧 마음의 멈춤과 비움이다. 이에 대응되는 것을 살펴보면 ㉠에서는 생각과 부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고, ㉡에서는 지각한 것을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지각한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멈추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앎의 층위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15번 문항의 ④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4. 난이도 및 총평

Smako 6회 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개념의 기본적인 관계와 범주를 본질로 하되, 수험생이 난해함을 느낄 수 있게 문항을 설계하였다. 제시문 속 표현의 난잡함을 줄이는 대신 선택지에서 승부가 나도록 의도하였다.

5. 출제 시 유의점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사설 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 특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문항을 설계한다.
-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유무 자체가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한다. 다만 인문·철학 분야는 그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과 문항 설계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과 답지를 설계한다.